

積奪無策을던貳拾餘斗落의畚土를寺本寒薄이라自財를喜捨하여裁判費에充用而及其出判之日에還推付寺을앗고法堂等內部에至하여는佛畫一軸도本無하고脫金佛像而已而冥黑無色을더니和尙의權力으로大佛事를法行하여改金の嚴好와幀畫의神光이足히頂禮者로信仰을可發할만하여大正三年度에는柳錦海大和尙을教授阿闍梨로請邀하여曾無을던金剛戒壇을建設하고海潮音演法에百萬緇素의戒器를保完케하여三學을修進호者—多數이며昨三冬부터는寺財도裕饒치못하디寒薄호로講伯義龍大和尙法幢下에修學緇侶가自遠方而雲奔하여現今二十有餘人에達호바—十地、二賢、起信、楞嚴、四科로分派되야論問講演法聲이道場에恒滿호니草木昆蟲도無不受此法光이라挽近以來如此盛興의法會는富寺에今始開初라호갓도다白巖、龜巖、內藏三地는中道山川에冠甲호는勝地而龜白兩地는年來講鍾이常鳴호앗슴으로清風禪匠과明月講伯이代不乏人이엇거니와至於內藏山호야는可謂講鍾이幾至於浸寂之境이더니乃仁乃慈호시고可柔可剛호신錦湖和尙의弘深願力으로大講會를創設호에常道來集이乃聚道場호니靈山法會의家風이요祇園精舍의後身이라如此末葉에若是盛會는都是由出於錦湖和尙之大願力이라可道호지라和尙은恒言키를如此法會가不止一二代而涓涓常續호야往百歲의創主가되고來百歲의繩準이되기를恒願호나尙恐不有學侶之來會於如是—라호니氏의願力感<sub>丁</sub>也

勝蹟은晦韜를難堪호갓도다茲에劣筆을叨舉호야全鮮法侶의規準範됨을佈告호고同히學友의趨奔을祝호노라

### 新刊禪學入門後跋

萬山沙門

萬行이不出六波羅蜜이라禪門은但是六中之一이니以三止三觀으로爲頂門宗旨者는是謂天台禪이오不立文字호고以直指人心、見性成佛로爲教外宗旨者는是謂達摩禪이니라觀夫、雪山之高源호는된曷云携貳리오만은及其日日流下也로怒潮平潭이分派或異호니宜彼末學이支離호야其至、相、疾視操戈를何足怪焉가然이나得其門也에는天台와達摩—俱爲一代正宗이니猶如春蘭、秋菊이各自幽芳이오失其路也에는天台와達摩—未免破家禿賊이니猶如城狐、社鼠—徒見可憎이리라如是則禪之爲物이果有門路乎아果無門路乎아有則野鶴巢邊에松最老호고毒龍潛處에水偏清이로다無則六月에不妨降雪이오鐵樹에亦見開花호리라

至若、達摩門下에虛喝盲棒이何其多耶아呆習이成風호야所謂風顛白痴者—儼爾、弩目豎拂호야號爲大善知識으로는反不如天台門下에因字以詮義호며因義以明理호야尙不失義理禪弟子之爲愈호리니於是에可見其天台禪之方便眞慈로俯爲

末學이殷勤微困은越諸達摩禪之了沒下學徑庭已로다

我東之新羅中葉에高僧、法融과理應과英純이聯錫遊唐을야俱得天台下三世、左谿東陽大師之妙法을고以華以香으로供養我、權域蒼生이無慮數百年之久러니洎夫漢陽定鼎後로華漸萎而香亦消을니四顧空山에其孰從而能聞夫蘄蘄華香者哉하茲者에有老石金先生을니嶠湖間通儒也라蚤涉天台禪學을引深慨無門이러니忽得月窓居士纂要之禪學入門而篤好之餘에思欲公施을야勤請其宗人金秉龍을야將刊布天下을시一日에屬稿跋其事을니鎬雖不文이나驚喜、天台禪學이復活乎今日故로不敢膠讓을노라然이나但叙其二禪之得失而已로及其入門之倫序을蓋數載本序을시姑略焉을노라 寓山沙門鼎鎬拈香

龍船和尚門契序

上人

白에楓岳山人崙玉이揖余以語之曰我師龍船和尚이年臘은雖未最高이나學德之堪爲沙門領袖는衆所知也라其門徒吾輩는能紹餘光이數至若干이라崇重師道之暇에圍此門徒之誼緒을야欲報棒喝之受恩을니命名曰門契이라惟仁者는盡惠仁言以序之이오余一應之曰君之師는即吾友也라數十年前에君師一訪我於龜山石室中을야競相琢磨을淹經年所을고重相會於方丈之竹林精舍을야談討烟雲을야銷受數載에其所助益이不可與黃金之世契로論其輕重을나니是以로深識君師之勤精温粹는莫我若也라을노라厥後에風雨一多阻을고燕鴻이分飛라君之師는道益大을고望益

蓮支이垂拂揚榭於東山西江之間을야儼然爲大宗匠을고入門繞座者一常數十人이로되如余者는落魄江漢에未定一枝之安은尙何言哉아髮霜이已然을시尙不見如君之聞道二三子을고今焉에對君爲師之懿範을야徒事其役을니不勝深感企羨之不已로라然이나西來之時潮가日甚汎濫을고報本之道義는日益崩頽을니不唯一室之內에婦姑一勃谿을야反脣而相稽라雖屬毛離裏之天眷이라至以相、努拳噴血을야爭訟于庭을니凡、蒿艱衛道者一撫心而痛歎者矣리라君且出世而能回日下之江流을야復効函毓之春暉을니嗚呼盛哉라正是時也에楓菊은交柯을고秋實이紺芳이로다于以龍庭碩果는芻矣盈箱이니라

舌底無奇士說

上人

夫言은心聲也라豈徒然爾리오頗能抽繹、慧輪靈緒을야代我光明于天下後世者也이니라是以로士之生於茲世에初無立身之機輪則己이니와如以七尺之軀로動作百世之師表을引殊重其片言隻辭을야用爲天下後世之經紀一明矣을니何爲而稱舌底에無奇士이오亦不能無、持之有故焉耳라然이나似有近遠二故을니自近而觀을引不謂吾人之宅一丘一如處冥海之孤艇乎아加之、鯨濤鱗浪에東湧而西浸을시石風霖雨一橫攻而奇襲이無時不然則嗟我同舟之輩는可回萬死之力을야努目奮拳而期圖、同濟登岸而止之이오不但夫揮塵揚臂을시舌弄三寸舌之汗漫云爾라當於是時을야는雖復活瞿曇之廣長舌이라도想無奏功之果을리니是故로解之者一曰必有

憤世而謂舌底에 無奇士라호노라 自遠而觀호면世之稱奇士者는能以一身으로 廓清四海之風雲호고使人으로 快靚天日而共享至樂호도可也 一優踴賢聖之堂軒호야 啓沃萬世之群蒙호도可也 一며 次而扶輪大雅호야 再振頽風호도亦可也 一니 安能以喋喋喃喃호야 徒事綺語之爲리호는故호로 解之者 一曰 必有警世而謂舌底에 無奇士라호노라 然雖如是나 將無錯解而使一世之士로 默默呆呆然호야 閉爾口、藏爾舌호야 歸作巖下枯禪然後에 可乎哉호야 切勿以辭害志焉耳니라

## 休暇의 感想

金 菊 初

七月六日은우리學校에서 夏期休暇를命호다 學生一同을三學年教室에會集호고 校長이出席호야 우리의對호야 諸君이工夫에勞力호기를數三朔에必是支離호生 覺도입지아니호를것이며또이러호極熱에勞力工夫호면 腦髓에如何호關係가입지아 니호를것호야 一 個月의休暇를命호니 各已還鄉호야 身體에注意호를것이며또 休暇라고 放心치말고工夫에注意호라호다 其前에冬期休暇이라든지 春期休暇에當호야 校長 이이러호說明이잇슬때에는 淸반갑고질거우며數百斤의荷物을버셔노호듯호며 淸涼散을먹은듯호더니今年 夏期休暇에는 이와返對로도호호 悲慘호고不快호生覺이

문득난다 昨年 夏期 休暇에 校長이 이와 호호 說明호든 光景이 어제 호호 淸生覺난다 그런 디언디듯가을, 겨울, 봄이 다 지나가고 또 호호 夏期 休暇이란 말이야 1 歲月이 빠르고 無常호줄은 恒常말호고 恒常生覺호는 바지만은 今日을當호를 더구나 더 深刻호를 것다 이러호 感想을 따러서 또 一 理想이 난다 至今은 暑症을 이기지 못호야 休暇를 호호 淸만은 一 陣秋風이 玉宇에 吹動호고 旅雁은 高飛호야 隨陽호고 籬菊은 秀綻호야 凌霜호를 것이며 萬里淨空에 金風이 蕭颯호야 吾人의 精神을 生動케 호호 電光호호 淸호를 것이 다 아아 淸歲月이 빠르도다 어니 淸中年이 淸지니 가고나을마 되지아니호면호호는 다 가고서히가오리로다 이제부터 五個月만 지니가면나히호살다호고 다른히가오리로 다다시못오리로다 二九四六年(佛紀)나 의 一生다시 못만나리로다 그러나 歲月이 빠 르물따라서 吾人의 事業도 그와 호호 淸호 進步되얏스면쉽다 그것도 그릿치안코 私情 업호 無常殺鬼가 青年으로호야 耆老人되게 호호 淸이 오黑髮호호야 金白髮되게 호호 淸이 다 이런 感想저런 感想호다 보니 호호 理想이 호호는 다 이 호호는 더구나 더 深刻호를 것이 다 우 리 佛敎社會에對호야 特別호 理想이 호호는 다 이 호호는 더구나 더 深刻호를 것이 다 우 호호말이라 호호 依賴호를 것이 업슬듯호다 그러나 深刻호 感想을 이기지 못호야 호호말부치고 저호다 淸만流水와 호호 淸호 光陰일지라도 一年의 許多호 光陰을 無滋味호고 無義味 호게 지닐것은 우리 佛敎라고 호호는 더구나 더 淸生覺호야 보시요 그간 우리社會에 教育 機關이라든지 其他如何호호 事爲에 進步되고 組織된게이 무엇이뇨? 나 도 佛敎社會에